

공동체 소식

이민자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4시
- 장소 : St. Patrick's Church in Kansas City
1086 N 94st. Kansas City, KS 66112
- 교구장 주교님께서 이민자의 날 미사 집전하십니다.
- **전신자 미사 참례합니다.**
- 1독서와 예물봉헌 등 한인공동체가 담당합니다.
- 한복 있으신 분들은 한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교구대회 안내

- 2019 Convocation (교구대회)
- * 일시 : 10월 3일(목) 오후 5시 - 5일(토) 오후 12:30
- * 장소 : Overland Park Convention Center
- * 교구대회 기간 미사없습니다. (목 토)

주일학교 안내

- 매주일 오전 10시 나자렛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 주일학교 자리는 해설대 쪽 앞 1열~4열까지입니다.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견
금 주	26	510	175	34
차 주	461	213	170	62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최은미(아네스)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차 주	김주연(세실리아)	박태주(로마노) 김명희(리드비나)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종복사
금 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빈(바오로) 김정원(안젤라)
차 주	고평원(프란치스코)	김지안(요한) 김정훈(로베르또)

헌금 봉사자

금 주	감영진(라파엘), 강승호(아오스딩)
차 주	미정

애찬 봉사자

금 주	4조: 김화년, 안현숙, 송진희
차 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뉘었지만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탐욕스러운 부자는 외면하시며, 무분별한 자들의 방종을 그치게 하시고, 짓눌리는 이들을 정의롭게 보살피십니다. 언제나 하느님 말씀에 충실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받아 주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그림 묵상

'애야, 너는 살아 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루카 16, 25

제 1 독 서 :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6,1ㄱ-4-7
<이제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6,11ㄱ-16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계명을 지키십시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습니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19-31
<너는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생명의 말씀

나눔으로의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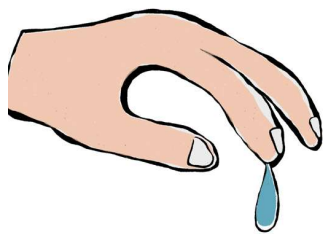


과테말라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결코 이곳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아직은 가난한 나라에 속하겠지만, 문제는 과테말라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입니다.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자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것을 빼앗기에 사회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여전히 가난한 나라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부유함의 근원인 하느님의 축복을 잃은 채 자신만을 위해 그 부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전하듯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처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살아가갈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주는 기쁨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랑의 나눔을 통한 기쁨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부유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어 주신 수많은 은총도 이웃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내 삶의 자리 주변에서 사랑의 위로를 기다리는 아픔과 외로움이 가득한 가난한 라자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닫힌 대문을 열고 나아가 내가 받은 능력, 사랑, 평화를 영적으로 가난한 라자로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오늘 복음에서 부자와 라자로의 이야기를 통해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사는 부자는 굶주림 속에서 자신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음식이라도 간절히 바라는 대문 앞의 라자로를 외면하였습니다. 결국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삶은 그 부자처럼 고통과 고초의 불길로 끝을 맺게 됩니다. 가톨릭교회는 분명하게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과 ‘공동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혼자서만 살아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각자의 삶에 따라 가난과 부유함이 공존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축복으로 받은 그 부유함을 고통 속에 있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유함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을 넘어서는 천상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로 흘려주지 않고
한 방울의 물로 주지 않고
한 방울의 자비도 주지 않았다면

그가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가 거기에 있었음을 당신은 모르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루카 16,2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초콜릿 세 알과 140원

감기를 앓고 나서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책 한 권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감기 기운에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걸을 만했습니다. 우체국에서 주소를 쓰다가 잘 못 쓰는 바람에 다시 새 봉투에 주소를 쓰고 창구에 책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빠른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며 카드로 결제하려는데 ‘봉투값 140원’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카드밖에 없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30분을 걸어서 왔는데 다시 집에 갔다 올 생각을 하니 난감했습니다. 동전 십 원이 부족하면 급할 때 공중전화도 못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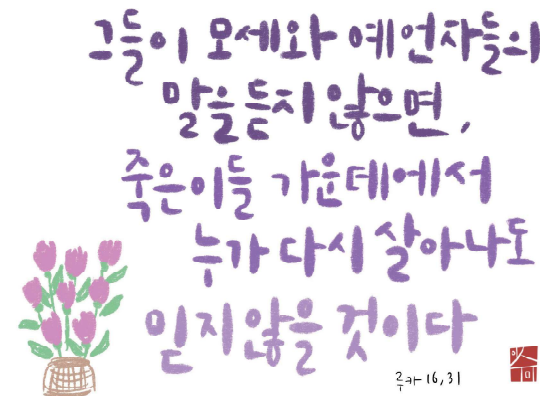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를 어찌죠. 제가 집에 가서 140원을 가져올게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 뒤에서 “여기요, 여기 있어요”라면서 200원을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소포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내미는 손에 들어 있는 200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면서 머뭇거리자 “아닙니다, 괜찮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도 남은 60원을 고마운 그분께 드리기엔 왠지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순간 가방에 들어 있던 초콜릿이 생각나서 은박지에 쌓인 초콜릿 세 알과 함께 남은 돈 60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분께, “받아주세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하며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습니다. 희부영게 먼지 낀 창문을 달고 달리는 마을버스도, 매연을 내뿜고 가는 용달차도 경쾌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던 감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40원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았다든 안도감보다는, 그저 난감한 상황의 누군가를 향한 사심 없는 배려가 새삼 감사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200원을 내민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목마를 때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버스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준다면가 물건을 들고 내리는 사람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는 등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땐 너도나도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지만 200원을 내밀던 낯선 손길에서 아주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김해선 비비안나 | 시인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이수미 율리안나